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부실 용접이 부른 '인재'

용접부 설계 강도 3분의 1 수준... 무자격 시공 확인 불법 하도급에 공기 단축 독촉·부당한 지시 정황도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는 부실 용접과 허술한 품질관리, 불법 하도급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설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용접 품질과 무자격 작업자 투입, 공기 단축 압박까지 겹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을 '용접 불량에 따른 철골 접합부 파손'으로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붕괴한 철골 구조물은 길이 48m 규모의 대형 장스팬(장경간) 구조물로, 핵심 접합부의 용접 품질이 설계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이 비파괴 검사와 구조 해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용접 부위는 시공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심각한 품질 저하 상태

였다. 현장 검사에서는 80%가 넘는 불량 격률이 나왔고, 용접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시 구조물에 작용한 하중은 설계 하중의 약 35% 수준에 그쳤다. 연구원은 설계 기준에 맞게 시공했다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정상적인 시공이 이뤄졌다면 접합부가 아닌 철골 부재 자체가 먼저 손실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용접부가 먼저 파단되면서 구조물 균형이 무너졌고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않

은 작업자가 용접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골 구조물 현장 접합은 자격증 보유자나 별도 기량 평가를 통과한 숙련 작업자만 수행할 수 있지만, 일부 작업자는 자격증은 물론 기량 평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와 감리 측은 용접 불량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물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불량이 확인된 일부 구간만 보수했을 뿐 전수 조사와 안전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용접 작업을 재촉하거나 시공 편의를 위해 철근을 삽입한 뒤 용접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접합부에서는 철근 삽입과

용접량 부족 등 명백한 시공 불량 사례가 발견됐다. 불법 재하도급 문제 역시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무등록 건설업체가 타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계약 없이 시공에 참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은 넓은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 장스팬 공법이 적용된 현장이었다. 연구원은 고위험 공정임에도 단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예비조사만으로

도 사고 원인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고 별도 분조사 없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자, 하청업체 관계자, 현장 작업자 등 11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연면적 1만 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항쟁업 암살' 남파 北공작원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고 항쟁업 전 북한노동당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남파됐다가 처벌받은 비전향 북한 공작원이 보안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북한 공작원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1월 황 전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남파된 북한 경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전향을 거부한 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거주지 신고 등 인적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9년 12월 탈북자로 인정해 국내에 잠입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출소 이후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거주지 신고 등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A씨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이후 신고를 마쳤고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교통안전체험교육 받는 어린이들 11일 광주 북구 오동동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은 유엔미 유치원생들이 광주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 강사들로부터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판 이해 등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공연·야구 티켓 싸늘이... 수익원 챙긴 30대 검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최대 14배 부당이익 확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공연과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 후 우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공연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3일까지 타인 명의 계정 44개를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예매 전문 대리업자를 통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매 전문 대리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티켓 1642장을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2배에서 최대 14배 가격에 되팔았다.

이를 통해 총 6억2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수익은 약 2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 약 2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베트남 여성 수입하지" 발언 인권위, 김희수 진도군수에 성인지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들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받고,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한 행사에서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스리랑가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장기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시민이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김 군수는 이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취지였지만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발언 내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들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준비하던 50대 추락사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로프를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9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 현장은 오전 8시부터 작업이 예정돼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작업 지시를 받은 뒤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에 앞서 외벽 도색용 로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추락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알로에